

2025년 금융시장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선임연구원(yoonyk@kdb.co.kr)
심한용 선임연구원(hyshim@kdb.co.kr)

I. 해외금리

III. 환율

II. 국내금리

2025년 해외 정책금리는 미국과 유로존, 중국의 경우 고용시장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그에 따른 내수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여타 주요국과는 달리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였으나, 물가 흐름 등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국제금리의 경우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 및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라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되나, 재정지출 확대와 그에 따른 국제 발행량 증가 예상이 시장금리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해외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과 함께 연내 인하가 이어지며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는 국제 발행량 증가와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수요 증가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완만히 하락할 전망이다. 회사채는 우호적인 발행 환경 조성 따라 발행 규모 증가가 예상되며, 신용스프레드는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등 회사채 시장의 위험요인 완화로 축소될 전망이다.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가운데 강세 완화 흐름이 예상되나, 견고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등으로 하락 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강달러 지속 가능성과 국내 수출 증가율 둔화 우려 등이 상방 요인이나, 양호한 달러 유입세, 엔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될 가능성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연평균 1,3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해외금리

1. 정책금리

□ 2024년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물가 흐름과 고용시장 상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반영해 통화정책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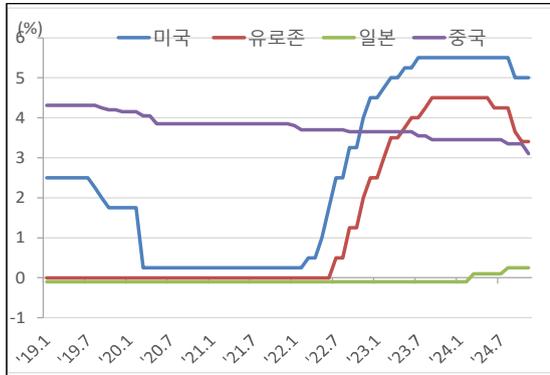
- 미국과 유로존은 빠른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 2024년 미국 경제는 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실업률은 연중 상승세를 보이며 연준의 금리인하 필요성 강화
 - 실업률(%): 3.4('23.1월) → 3.7('24.1월) → 4.0(5월) → 4.1(10월)
 - 기준금리(%): 4.50('23.1월) → 5.50('24.1월) → 5.00(9월) → 4.75(11월)
 - ECB는 2024년 유로존 경제가 독일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물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은 점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단행
 - 독일 GDP 성장률(% , yoy): $\Delta 0.7$ ('23.3Q) → $\Delta 0.4$ (4Q) → $\Delta 0.8$ ('24.1Q) → 0.1 (2Q) → 0.2 (3Q)
 - 유로존 소비자물가(% , yoy): 2.8('24.1월) → 2.4(3월) → 2.5(6월) → 1.7(9월)
 - 유로존 기준금리(% , yoy): 4.50('23.1월) → 4.25(6월) → 3.65(9월) → 3.40(10월)
- 일본은 엔화 약세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점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 현재의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시사(2024년 10월 금융정책회의)
 - 일본 기준금리(%): $\Delta 0.10$ ('24.1월) → 0.10(3월) → 0.25(7월) → 0.25(10월)
- 중국은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산업 및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리인하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대책 추진
 - 중국인민은행(PBOC)은 1년 대출우대금리(LPR1)을 두차례 인하하는 한편 기준을 인하 등을 통해 연중 부양적 통화정책 강화
 - 1년 LPR(%): 3.45('24.1월) → 3.35(7월) → 3.10(10월)

1) Loan Prime Rate,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로 사실상 기준금리로 활용

□ 2025년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용 및 자산시장 불안, 안정적인 물가 등을 반영하며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나 국가별 속도 차이 존재

- 미 연준과 ECB, PBOC는 고용시장 둔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그에 따른 내수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금리인하를 진행할 전망
 - 미 연준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상업용 가격 침체 장기화, 주거용 부동산 건설 부진 등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리인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은 2024년 중 총 75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135bp 추가 인하 예고
 - ECB는 유로존 경제가 독일을 중심으로 빠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당초 우려에 비해 빠른 물가안정을 근거로 미국에 비해 적극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
 - 중국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수 및 산업생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5년에도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진행할 전망
 - 70대 도시 신규주택가격(% , yoy): $\Delta 0.7$ (24.1월) $\rightarrow \Delta 2.2$ (24.1월) $\rightarrow \Delta 4.5$ (5월) $\rightarrow \Delta 5.8$ (10월)
- BOJ는 여타 주요국과는 달리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였으나 새 정권과의 경제정책 공조²⁾ 필요성, 물가 흐름 등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전망

<그림 1>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표 1>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단위 : %)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국	4.05	3.70	3.45	3.30
유로존	2.90	2.65	2.40	2.30
일본	0.40	0.50	0.60	0.70

주 : 2024.11월 기준

자료 :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2) 이시바 내각의 경제재성장관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디플레이션의 완전한 탈피를 실현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했으면 한다고 발언

2. 시장금리

□ 2024년 주요국 국채금리는 통화정책 방향, 미국 정권 교체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배경으로 등락

- 미국 경기호조 등을 반영해 상승세를 보이던 주요국 시장금리는 ECB의 빠른 정책 전환, 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하락하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부각으로 재상승
 - 연준의 정책 방향과 함께 전년 대비 증가한 미국 정부지출이 국채 발행 증가에 의한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주요국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아 주요국 국채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시현

□ 2025년 주요국 국채금리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 견해차 축소로 하락할 것이나, 각국 행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으로 하락 폭 제한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당국의 금리인하에 방향 및 속도에 대한 금융시장 내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예상
- 다만, 주요국 차기 행정부가 산업·경제에 대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정 지출 확대가 국채발행량 증가로 이어지며 국채금리의 빠른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
 -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적극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 시사
 - (유로존) 신임 EU집행위는 친환경 산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침
 - (일본) 이시바 신임 행정부는 디플레 탈피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주장

<그림 2>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표 2>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전망

(단위 : %)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국	3.81	3.76	3.74	3.73
독일	2.20	2.20	2.24	2.25
일본	1.13	1.20	1.27	1.32

주 : 2024.11월 기준

자료 :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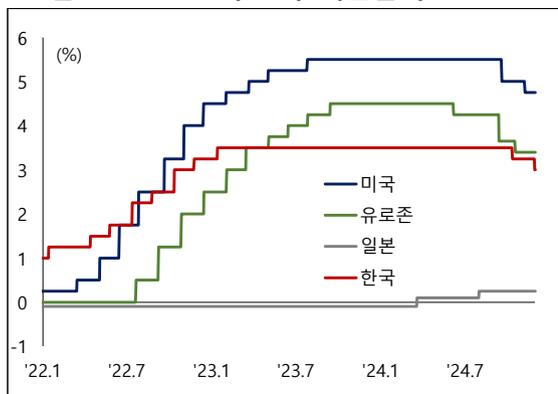
Ⅱ. 국내금리

1. 기준금리

□ 2024년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을 반영하여 기준금리 인하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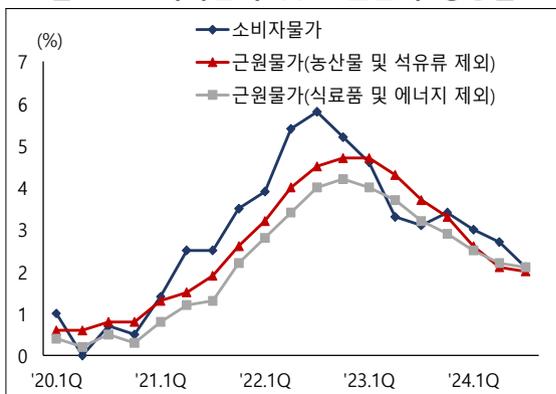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24년 8월까지 3.5% 수준에서 동결
 - 2024년 상반기 견고한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하가 지연되었고,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도 3% 내외를 기록하며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지속
 -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이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인하 개시 지연
- 하반기 주요국 금리인하 개시 가운데, 한국은행도 10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11월 25bp 추가 인하
 - 국내 물가상승률 하락세와 내수 회복 지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 금융안정 리스크의 완화 징후 등이 금리인하 개시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3.0('24.1Q) → 2.7(2Q) → 2.1(3Q) → 1.3(10월)
 - 가계부채 증감(조원, 전월차) : 4.2('24.6월) → 5.2(7월) → 9.8(8월) → 5.2(9월)

〈그림 3〉 주요국 기준금리



자료 : 각국 중앙은행

〈그림 4〉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 2025년 기준금리는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가운데 국내 물가상승률과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2.50~2.75% 수준까지 인하가 이어질 전망

- 2025년 기준금리는 주요국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가운데 국내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완만한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2.50~2.75%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 2025년말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은 2.50%('24.11.28일)
- 우리나라의 내수 회복 속도와 물가상승률 추이, 주요국의 경기 상황과 통화정책 방향이 한은의 금리인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 원/달러 환율 변동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국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이 한은의 금리인하를 제약할 가능성

2. 시장금리

□ 2024년 우리나라 시장금리(국고채 3년)는 미국 금리상승에 동조화하며 상승한 후 국내외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하락

-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분쟁 격화 등에 따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24.1월 평균 4.10% → 4월 평균 4.71%)에 동조화하며 4월까지('24.1월 평균 3.27% → 4월 평균 3.44%) 완만히 상승
- 이후 시장금리는 국내외 물가상승률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전환 등에 따라 국내 금리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며 하락, 8월부터 2.9% 수준을 유지
 - 우리나라 국채 순발행 규모의 축소 흐름도 하반기 중 시장금리 하락 요인
 - 국고채 순발행(조원) : 28.8('24.1Q) → 7.5(2Q) → △32.4(3Q) → △3.5(10월)

〈그림 5〉 기준금리,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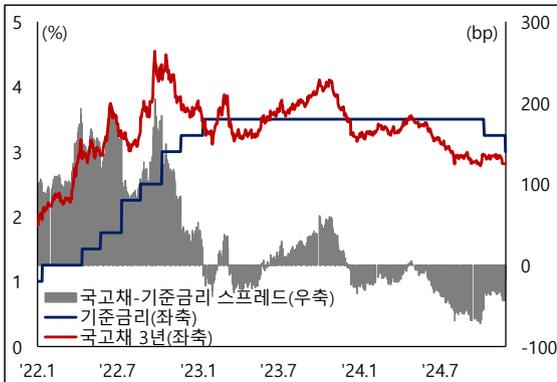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 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 2025년 시장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흐름과 국채 발행량 증가의 영향을 받아 상고하저 양상을 보이며 전년보다 완만히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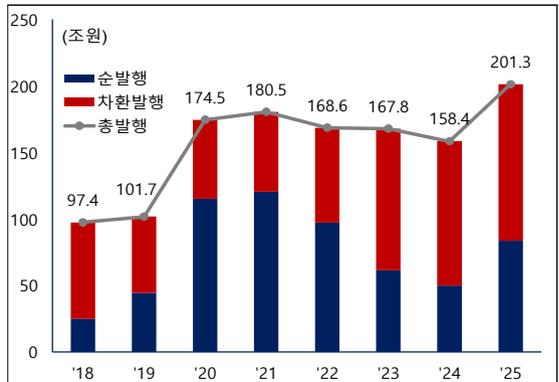
- 시장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나, 금리인하 개시 전 선반영분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기준금리가 국고채금리를 하회하는 역캐리 상황 장기화 현상은 금리인하 본격화 및 시장금리의 완만한 하락세 가운데 점차 해소될 전망
 - 국고채 3년-기준금리 스프레드(bp) : $\Delta 17.8$ (24.3월말) $\rightarrow \Delta 31.8$ (6월말) $\rightarrow \Delta 68.9$ (9월말)
-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되나, 국채 발행량 증가의 영향으로 시장금리는 상고하저 양상을 보일 전망
 - 외국인 국채투자의 증가세 및 2025년 하반기 우리나라 국채의 WGBI(세계국채 지수³⁾) 편입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 유입은 시장금리의 하락 요인
 - 외국인 국채 순매수(조원) : 8.4 (24.1Q) $\rightarrow 11.6$ (2Q) $\rightarrow 20.0$ (3Q) $\rightarrow 4.9$ (10월)
 -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국고채 순발행 '24년 49.9조원 \rightarrow '25년 83.7조원) 계획은 시장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국고채 발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19년~'23년)간 국채 발행량 중 상반기 발행 비중은 평균 59.3%
-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견조한 미국의 경제성장 등에 따라 연준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시장금리 하락 폭도 축소될 가능성

<그림 6> 국고채-기준금리 스프레드



자료 : 연합인포맥스

<그림 7>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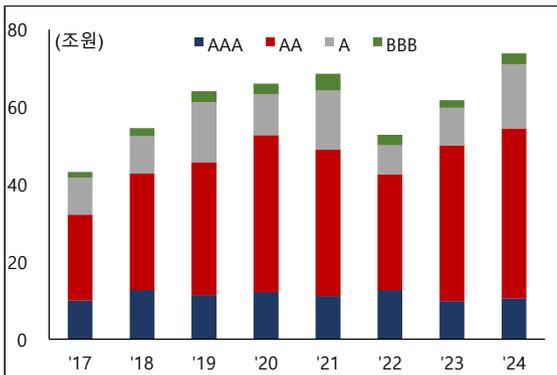
3) 전세계 WGBI 추종 자금은 2.5~3조 달러 규모로 추정,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 비중(2.2%) 감안시 하반기부터 약 6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전망

3. 회사채금리

□ 2025년 회사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투자 수요 증가 등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발행량 증가가 하단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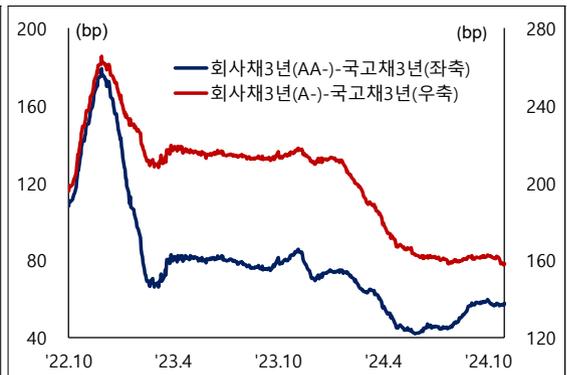
- 2024년 회사채 발행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금리인하 이전 발행 연기에 따라 순발행이 감소하며 회사채금리도 하락
 - 회사채 발행/순발행(조원) : 82.5/13.0('23.1~10월) → 95.0/8.5('24.1~10월)
 - 평균 3년물 AA-금리(%) : 4.0('24.1월) → 3.9(3월) → 3.7(6월) → 3.5(10월)
 - 평균 3년물 A-금리(%) : 5.4('24.1월) → 5.2(3월) → 4.9(6월) → 4.5(10월)
 - 2024년 상반기 신용스프레드(3년물)는 금리인하 이전 회사채 선매수 수요가 확대되며 축소, 3분기부터 우량물은 소폭 확대된 반면 비우량물은 횡보
 - 3년물 AA- 신용스프레드(bp) : 73('24.1월말) → 60(3월말) → 45(6월말) → 57(10월말)
 - 3년물 A- 신용스프레드(bp) : 206('24.1월말) → 184(3월말) → 161(6월말) → 157(10월말)
- 2025년 회사채금리는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등 견조한 채권투자 수요로 하락이 예상되나, 순발행 확대 가능성으로 하락 폭 제한
 - 채권형 펀드 잔액(조원) : 145('24.3월말) → 154(6월말) → 170(9월말) → 176(10월말)
 - 기준금리 인하 본격화에 따른 자금조달 환경 개선으로 회사채 순발행이 확대되며 금리 하락 폭이 제한될 가능성
 -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부동산 PF 리스크를 비롯한 회사채 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화되며 축소 흐름을 보일 전망

<그림 8> 회사채 발행 규모



주 : 2024년은 1.1~10.31일
 자료 : 코스콤

<그림 9>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자료 :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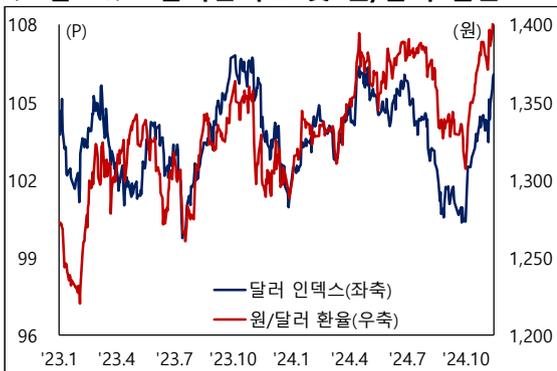
Ⅲ. 환율

1. 2024년 환율 동향

□ 2024년 달러화는 강세 흐름 가운데 9월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약세 후 10월 재차 강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 주요국 통화는 상이한 흐름을 기록

- 2024년 달러화는 상반기 강세를 보인 후 하반기 등락하며 변동성이 큰 양상
 - 상반기 달러화는 견고한 미국 경제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 후 미국 경제지표 결과 등에 따라 등락
 - 하반기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과 고용 둔화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확대되며 약세 전환한 달러는 9월 FOMC 빅컷(big cut) 후 추가로 약세를 보였으나, 10월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재차 강세
 - 달러인덱스(P): 102.2('24.1월말) → 105.8(6월말) → 100.7(9월말) → 103.9(10월말)
- 2024년 10월까지 달러화 대비 엔화는 크게 등락한 후 연초대비 상승(+6.9%) 하여 약세, 위안화(△0.4%)와 유로화(△0.6%)는 하락하며 소폭 강세
 - 엔화는 큰 수준의 미-일금리차 등으로 7월까지 약세가 지속된 후 금리인상 실시로 강세, 3분기 이래 총리 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재차 약세
 - 위안화는 상반기 소폭 약세를 보인 후 부양책 발표, 정책금리 인하로 강세
 - 유로화는 경기 부진에 따른 연중 2회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소폭 강세

<그림 10>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자료 : 연합인포맥스

<그림 11> 연초 대비 주요국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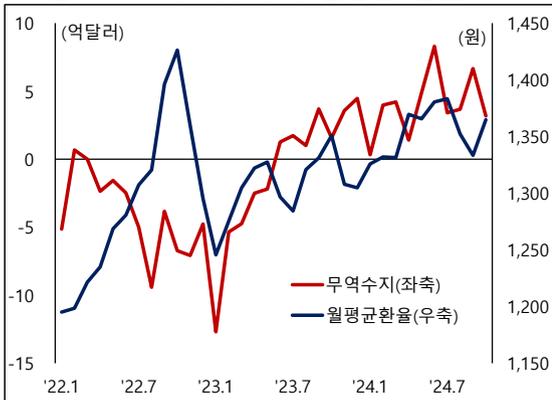


자료 : 연합인포맥스

□ 2024년 원/달러 환율은 10월까지 평균 1,354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1,306원 대비 상승하였고, 연중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심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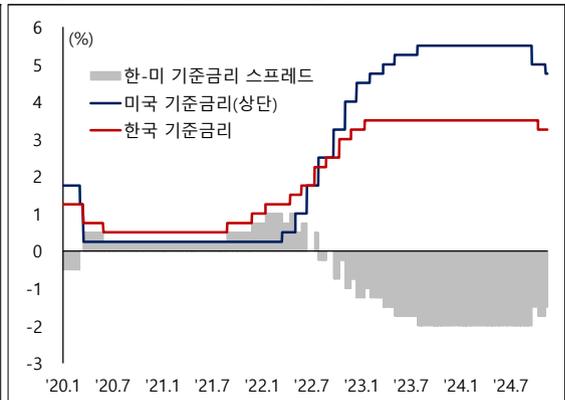
- 평균 원/달러 환율(원): 1,329('24.1Q) → 1,371(2Q) → 1,358(3Q) → 1,365(10월)
- 연초 1,300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중동 분쟁 격화 등으로 4월 1,390원 대까지 상승, 5월 상승 폭을 반납 후 7월까지 재차 상승
 -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국내 달러 수급이 양호하였으나, 중동 분쟁 격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원/달러 환율은 4.16일 1,394원까지 상승
 - 중동 분쟁이 일단락되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한 후 약세가 지속되던 엔화에 원화가 동조화하며 7월까지 재차 상승
- 7월 이후 1,350원대 이상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 후 10월 다시 상승하며 1,400원 수준에 근접
 - 8월 일본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강세를 보인 엔화에 원화가 동조화되었고, 연준의 금리인하 개시로 한-미금리차가 축소되며 원/달러 환율은 9.30일 1,307원까지 하락
 - 엔/달러 환율(엔) : 142.0('24.1.2일) → 161.7(7.3일) → 140.6(9.16일)
 - 이후 10월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금리인하 개시와 한-미금리차 확대,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재선 확정 등으로 11.13일 1,407원까지 급등

<그림 12> 무역수지와 월평균 환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13> 한-미 기준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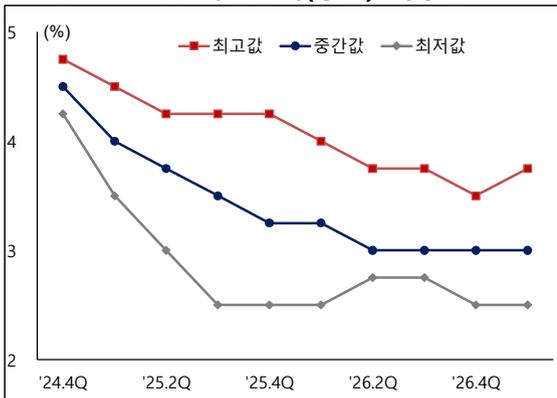
자료 : 연합인포맥스

2. 2025년 환율 전망

□ 2025년 달러화는 연준 금리인하 본격화 등으로 강세가 완화될 전망이며,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예상,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으로 하락 폭은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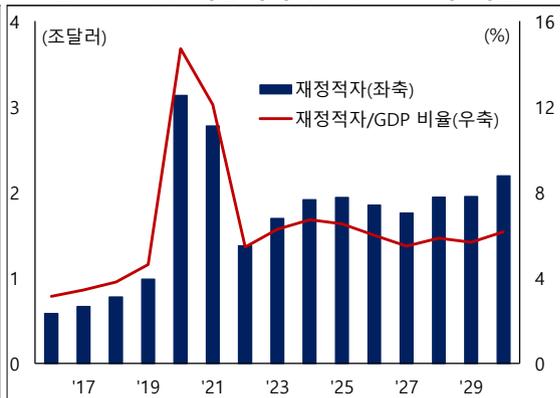
- 금융시장도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을 예상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대미 금리차 축소로 강달러 기조가 점차 완화될 전망
 - 연방기금금리선물('24.11.8일 기준)에 반영된 2025년말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치는 3.50%으로,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 본격화를 예상하는 점은 달러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
 - BOJ 우에다 총재는 일본의 추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으로, 미-일금리차 축소 전망도 강달러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주요국 성장경로에 따라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
 -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은 감세정책을 펼칠 전망으로, 이에 따른 미국 국채 발행량 증가와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 예상이 달러화 강세 요인
 - 미국 재정적자 규모(조달러) : 1.69('23년) → 1.92('24년E) → 1.94('25년F)
 - 트럼프 신정부가 계획 중인 관세장벽 구축 등의 통상정책도 국제경제 및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주요국과 미국의 경제성장이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견조한 경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약달러 압력을 제한

<그림 14> 美 기준금리(상단) 예상경로



자료 : Bloomberg Consensus

<그림 15> 美 재정적자 및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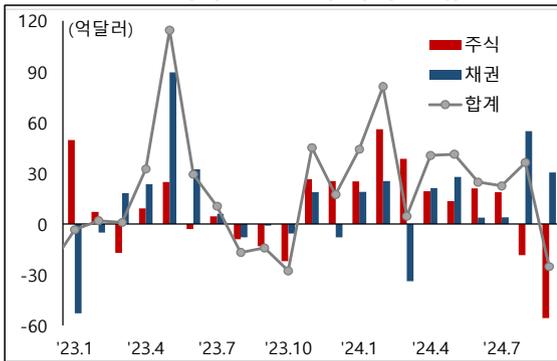


주 : 2024년부터의 수치는 美 의회예산처 전망치
 자료 : 美 의회예산처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완만히 하락하여 전년 평균보다 낮은 연평균 1,325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엔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될 가능성, 양호한 국내 달러화 수급 여건 등으로 하락할 전망
 - 미국의 금리인하 본격화로 달러 강세가 완화될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25년 일본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엔화 강세 압력에 원화가 동조화되어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가능성
 - 2024년 1~10월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0.768
 - 무역수지 흑자와 WGBI 편입 등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지속도 국내 달러 수급 여건 개선 요인
 -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순유입(억달러) : 10.2('24.1Q) → 52.6(2Q) → 88.9(3Q)
- 한-미 금리인하 속도차 및 국내 달러 유입 감소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강달러 지속 우려 등으로 환율 하락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차이,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는 국내 외환시장 및 원/달러 환율의 불안 요소로 작용
 - 수출 증가율 둔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지속 등에 따른 국내 달러 유입량 축소 가능성은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
 - 국내 수출 증가율(% , yoy) : 5.1('24.6월) → 13.9(7월) → 11.4(8월) → 7.5(9월)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의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강달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제약될 가능성

〈그림 16〉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자료 : 한국은행

〈표 3〉 2025년 원/달러 환율 평균치 전망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024년	1,350	1,360	1,355
2025년	1,340	1,310	1,325

주 : 2024년 하반기는 예상치, 2025년은 전망치